

세경본풀이의 재인식

김 선 회*

차 례

1. 서론
2. 본론
 - 1) 세경본풀이의 내용과 구조
 - (1) 채록자료 검토
 - (2) 세경본풀이의 내용
 - 2) 세경본풀이의 해석
 - (1) 다른 서사물과의 비교해석
 - (2) 분석심리학적 해석
3. 결론

1. 서론

무가는 수백·수천 년의 오랜 역사를 안은 채 침묵을 지켜온 무의 원시적 구비경전인 동시에 서사 율문신화이다. 그렇듯 서사무가는 저층에서 간간이 이어져 온 민간신앙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속신화임에 틀림없다. 서사무가를 신화라 일컫는 것도 이젠 무리가 아니며 한국 신화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화는 그 동안 국조신화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무속신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¹⁾ 근래에 와서 국문학 연구 소재의 확대 측면이나 국문학의 자양분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점차 넓혀지고 있기도 하다. 김열규는 국조신화로 보이는 상고대 신화들은, 상고대 왕조의 왕권이 무속원리에 의해 신성화된 얘기라고 그 성격을 추상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무속신화와 연관시켜, 무속적 원리를 지닌 신성왕권의 본풀이로 본다.²⁾ 서대석 역시 우리나라의 단군, 주몽, 혁거세, 수로 등의 국조신화는 무속적 제전을 통해 전승된 무속신화이면서 동시에 무속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³⁾고 하였다. 따라서 무속신화 즉 서사무가의 연구는 국조신화 연구 뿐 아니라 우리 구비문학연구 전반에 있어서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무속신화에는 남성영웅들이 주인공으로 하는 국조신화와는 달리 여성영웅들이 빈번히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단순히 주인공의 성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계층으로 여겨지는 자신들의 허물을 벗으려는 갖은 노력이 보인다. 가장 원초적 여성상징들 중의 하나가 여신이라고 할때 신화의 여신들에게서 여성의 원형을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웅을 남성으로만 한정시켜 보는 편협한 이해에서 벗어나 여성영웅에도 관심을 가질 때 영웅 신화에 대한 연구도 더욱 온당해질 것이다.

본고는 제주도 본풀이 중에서 세경본풀이 내용을 살피고, 이 무속신화와 관련한 다른 서사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하고

1) 조동일은 무가를 수집한 열의에 비해 무가가 어떤 성격과 의의를 가졌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희박했음을 지적하며 설화, 민요, 판소리 등의 분야에 비해 볼 때 자료의 수집에는 무가가 앞섰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에 있어서는 무가가 현저하게 뒤떨어졌음을 지적했다. 조동일, 「무가의 문학적 성격」, 『이화』 30, 이화여대 학도호국단 문예부 1976

2)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3) 서대석, 「무속과 국문학」, 『한국 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아울러 무속신화에서 보이는 여성주인공들의 영웅성을 살핌과 동시에 여성의 원형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세경본풀이의 내용과 구조

(1) 채록자료 검토

| 제 목 | 구연자 | 채 록 자 | 발 표 지 | 발표연도 |
|-------|-----|----------|-----------|------|
| 세경본풀이 | 안사인 | 현용준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 1980 |
| 세경본풀이 | 강을생 | 진성기 | 제주도무가본풀이 | 1998 |
| 세경본풀이 | 고대중 | 장주근 | 韓國の民間信仰 下 | 1973 |
| 세경본풀이 | 朴奉春 | 亦松智城·秋葉隆 | 朝鮮巫俗の研究 | 1937 |
| 세경본풀이 | 강순선 | 문무병 | 제주무가본풀이 | |
| 세경본풀이 | | | 풍속무음 | |

세경본풀이는 어떤 채록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그 서사구조나 내용이 복잡하고 다른 본풀이에 비해 풍부하다. 바꾸어 말하면 공간적인 규모나 이야기의 전개가 흥미롭다.

진성기의 『남국의 무속서사시』에 실린 것도 내용면에서 풍부함을 지니고 있으며 후반부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과 약간 자리가 바뀐 정도다.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리듬감이 있다. 장주근의 『韓國の民間信仰』에 실린 것은 내용은 풍부하나 후반부의 사건은 적은 편이다. 자청비의 부모내력은 간단하고 자청비의 활약이 많지 않다.

亦松智城 秋葉隆의 『朝鮮巫俗の研究』 자료는 앞부분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나 후반부는 간단하다.

세경본풀이의 자료는 소개한 것 외에도 많다.⁴⁾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 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무속자료 사전은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사건도 가장 많으며, 자청비의 조상을 조부, 조모, 부모 등을 처음에 모두 밝히고 농신인 자청비의 본을 풀어 나간다.

세경본풀이는 내용도 길고 사건도 많으며 그 진행순서도 뒤바뀌는 경우도 많고 생략되는 경우도 많은데 박경신은 무속자료사전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순서가 비교적 원형에 가깝다⁵⁾는 지적을 한다. 또 본풀이 내용만 나와 있는 다른 자료와 달리 제의의 의례의 진행에 따라 자료가 채록되어 신화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2) 세경본풀이의 내용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농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크게 네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내용은 첫째 자청비의 탄생, 둘째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이별, 셋째 문도령과의 재회·재결합, 마지막은 자청비가 농신으로 좌정하는 장면이다.

● 자청비의 탄생

①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부귀를 누리며 살때 오십이 가까워

4)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_____,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98.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5)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도 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대감이 세거리에서 바둑 장기 놀이를 할때 한 걸인이 자식을 놓고 웃는 것을 보고 돌아와 자식 없음을 탄식한다.

② 동개남 상서절 대사가 권제삼문을 받으러 와서 짐진국 대감이 시주를 하고 사주를 봐 달라고 하니 원불수륙을 하면 자식이 있다하여 백일 수륙을 드리고 백일되는 날 재어보니 한근이 부족한 아흔아홉근이라 여식을 접지 받는다.

●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이별

① 자청비의 나이 십오세때 베를 짜다가 하인 정수덕이의 손이 하얀 것을 보고 까닭을 물으니 빨래를 해서 그렇다 하여 자청비가 주천강 연지로 연서답을 갔다.

② 하늘 옥황 문국성의 아들 문왕상 문도령이 아래녁 거무선생에게 글공부하러 가다가 자청비 보고 반하여 물을 청한다. 자청비는 물에다 버들잎을 띄워준다. 문도령이 이것을 닷하니 자청비는 물을 급히 먹다 체할까봐 그랬다고 하고, 자기 동생과 함께 글공부할 것을 권하여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함께 길을 떠난다.

③ 형제를 삼아서 공부를 할때 한 이불에서 자고, 한 술밥을 먹는데 한 두해 지나다 보니 문도령이 보기에 자청비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④ 자청비가 피를 내어 은대야를 놓고 잠을 자기, 오줌갈기기 등으로 글공부는 물론 남자로서의 의심을 씻는다

⑤ 서수왕 딸애기에게 장가가라는 문국성의 편지로 글공부를 그만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청비가 목욕할 것을 권한다. 자청비는 옷통에서 문도령은 아랫통에서 목욕을 하는데 자청비가 눈치없는 문도령에게 버들잎에다 책망의 글을 써 보낸다.

⑥ 자청비가 여자임을 문도령이 알게된 문도령과 자청비는 하룻밤을 보내고 문도령은 얼레빗과 박씨를 주고 떠난다.

● 문도령과의 재회·재결합

① 문도령과 헤어진 후 하인 정수남이에게 일을 시켰더니 정수남이는 나무하러 갔다가 소 아홉 말 아홉 마리를 모두 잡아먹고 자청비에게 문도령을 구경하다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한다.

② 정수남이에게 속은 자청비는 겁탈하려는 정수남이를 죽이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하인을 죽인 사실을 말한다. 부모가 종의 일을 시키는 데 일이 고되어 집을 나온다.

③ 집에서 쫓겨나와 황세곤간의 서천꽃밭의 부엉이를 잡아주고 말젓 아기와 혼인하여 살오르는 꽃 빼오르는 꽃을 얻어와 정수남이를 다시 살린다.

④ 부모에게 정수남이르 살렸다 하니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하는 집안 망칠년이라고 오히려 자청비를 내쫓는다. 울고 있는 자청비를 주모할망이 수양딸로 삼고 자청비는 주모할망 대신 문도령의 혼수비단을 찢다. 문도령은 비단 찢 이를 묻고 자청비임을 알고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⑤ 문도령이 옥황에서 내려와 자청비와 만날 것을 청하니 자청비는 기다리다가 바늘로 창 틈으로 내민 문도령의 손가락을 찌르고 화가 난 문도령은 돌아가 버린다. 이를 안 주모할망은 행동이 단정치 못하다하여 자청비를 내쫓는다.

⑥ 중이 되어 시주하러 다니는 자청비는 울고 있는 궁녀를 만나고 궁녀를 도와 하늘로 올라간다.

⑦ 문도령에게 발견된 자청비는 문도령과 만단정회를 나누는데 하인 느진덕정하님이 이를 문도령 부모에게 고하여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반대하고 무서운 과제를 내린다. 자청비는 솟선섬에 불을 띄우고 그 위에 선 칼을 타 나가다가 발뒤꿈치를 베어 치마가 피에 젖어 있는 것을 부모가 물으니 몸구실 하느라 그렇다고 재치있게 넘기고 문국성의 며느리가 된다.

● 농신으로 좌정

① 자청비가 문도령과 백년해로 할때 옥황에서 이를 시기하여 문도령을 죽여두고 자청비를 푸대삼하려 한다. 이것을 안 자청비가 문도령을 서천꽃밭 서수왕 딸에게 가서 선보름살고 후보름은 나에게 와서 살으라고 하니 문도령이 가서 오지않아 자청비가 편지를 써서 새의 날개에 보내니, 문도령이 이를 보고 바빠 돌아와 바쁜행차이 되었다.

② 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문도령을 초청하니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술을 받아 먹지 말고 턱 밑으로 버리라고 하여 문도령은 죽음을 모면하고 궁밖으로 나오다가 외눈박이 할망이 주는 술을 받아먹고 죽는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가서 도환생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려낸다.

③ 고을에 변이 나서 이를 막는자에게 땅 한쪽 물 한쪽을 준다는 방이 붙어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멸망꽃을 꺾어다가 세 변란을 막고 천제께 물과 땅을 받고 오곡과 열두시만곡을 달라고 해서 이를 받고 문도령과 함께 칠월 십사일 인간계로 내려온다.

④ 정수남이가 부모가 죽은 것을 알려주자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농부가 잘·잘못 대하는 것으로 그해 흉·풍년을 가늠하게 되었고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자청비, 하세경 정수남은 칠월 마불림제로 얻어 먹기 마련하였다.

2) 세경본풀이의 해석

(1) 다른 서사물과의 비교해석

고소설과 서사무가 가운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세경본풀이와 양산백전을 꼽을 수 있다.

조현회는 “주인공 자청비가 기자정성으로 태어나는 명문거족 출신이라는 점과 후에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동문수확하는 사연, 서로 이성(異

性)임을 확인한 후에도 '결합-이별-재결합' 하는 등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줄거리가 유사하며 양산백전은 천상계-지상계라는 이원구조의 순환속에서 삶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선비의 일생을 그린 것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던 양산백전계열의 보권을 소재로 우리 구미에 맞는 구성으로 짠 것이다.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중국의 양산백 보권류의 변안이다. 중국에서 유행하던 설화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고소설이 되기도 하고 세경본풀이 같은 서사무가에 영향을 미친것이다"⁶⁾라고 했다. 무가로 불리면서 청중의 기호에 맞도록 각색되다 보니 이본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구연상황의 특성으로 외설성을 품고 있다. 또한 세경본풀이가 제주도라는 특수성으로 비교적 형태의 변화 없이 아직까지 구비 전승되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의 양산백전 보권류→고소설양산백전→세경본풀이로 변모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당태종임명기→고소설당태종전→세민황제본풀이, 안락국 태자경→고소설 안락국전→이공본풀이와 같은 것의 변화경로를 들고 있다. 중국의 강창문학이 불교유입과 포교의 방향으로 전해져 고소설로 자리하거나 서울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는 조금 더 고대의 형태인 무가로 자리했다는 것이다.

박용식도 양축설화가 전래하여 고소설 양산백전을 형성하고 다시 세경본풀이에 수용된 것⁷⁾이라고 보고있다. 양축설화가 직접 무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고소설이 무가로 변모했다는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좌혜경은 강창문학→무속신화→고소설의 생성을 추론하고 있고 정규복은 양산백전은 중국의 양축설화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재생설화를 삼입시키고 이야기의 비극성을 가미하는 등 한국적으로 개작·창작하여 한국적 소설화가 된 작품이라면서 주인공의 명칭이 모호함은 전승·파

6) 조현희, 「세경본풀이의 연구」, 경기대대학원 석사논문, 1989.

7)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생과정에서 온 오류·잘못이며 양축설화→고소설양산백전→무가로 유포된 것이며, 중국의 설화와 우리 무가 사이의 중개역할을 고소설이 했다고 한다. 즉 무가가 양산백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양산백전이 무가에 영향을 미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교육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무녀들이 중국의 설화나 소설을 입수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조선조의 소설 개작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했으므로 개작된 고소설이 무가에 습합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상의 논지에 부정적인 견해이다. 세경본풀이의 내용 즉 줄거리는 중국의 강창문학이나 양산백전의 파생·변화·전승되었다는 것이 상당한 지지력이 있고 지금까지의 논의로 타당해 보이나 그 서사구조나 이야기 자체가 고대문화에서 중세로의 보편적인 양상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본토에서는 양산백전이 유행하였지만 널리 퍼지진 못하였다. 즉 그 이야기는 있으나 청자의 구미에 맞도록 형태가 변하고 각색되어지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이 아닌가 한다. 바꿔 말하면 고소설의 형태로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소설로써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청자·독자들을 사로잡았을 법하며, 그만큼 유행이 급변하는 시기였을 것이다. 반면에 변방에서는 우리나라에 고루 퍼진 이야기답게 세경본풀이로, 자청비이야기(민담)로 제주도는 물론 문국의 주인공들의 순애담을 담은 채 함경도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다만 삼입된 이야기는 불교나 유교의 단편적인 일화가 삼입된 것이라고 여겨지며 단순히 중국 설화와 이야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전파·전승된 것은 무리이고, 중국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변방에까지 특히나 남방 문화가 지배적인 제주도까지 고루 퍼져 있던 것은 자청비-세경본풀이의 줄거리가 보편적인 이야기였던 것을 반증한다.

(2) 분석심리학적 해석

원형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

며,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의 여러 조건이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인류가 되풀이하며 경험해온 모든 경험의 집전이며, 인종과 문화의 차이, 지리적 차이, 시대적 차이 등 시공의 차이를 넘어서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행태를 일어나게 하는 선형적인 틀이다⁸⁾. 따라서 그 자체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으로 나타날 때 특질을 살필 수 있다. 여성원형은 용의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 많은 원형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정신의 기저를 이루며 인격적인 상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원초적 상속에서 여성원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무의식에 특유한 성격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나타나는 양상의 특징이 대개 남성에는 여성적 경향을 여성에게는 남성적 경향을 띤다. 이런 경향은 마치 하나의 인격과 같다. 남성의 의식에 대응하는 무의식적 인격을 '아니마', 여성의 내적 인격을 '아니무스'라고 용은 말한다. 여성은 남성적 특성을 무의식에 지니고 있어 그것의 실현이 인격성숙의 전제가 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라는 인격을 통해 여성원형을 살필 수 있다. 거꾸로 자청비의 상대자가 되고 있는 문도령이나 정수남이에게 투사된 자청비의 내적 인격인 아니무스를 만날 수 있기도 하다.

우선 세경본풀이에서 보이는 자청비의 역할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신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성중심이었고, 더구나 신화의 주인공을 영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국조신화와 달리 무속신화는 주인공 뿐 아니라 그 서사무가를 가까이 하는 무당이나 굿의 청중 역시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제주도 열두굿에서도 초공본풀이나 삼공본풀이 그리고 세경본풀이에까지 여성주인공이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런 대표적인 주인공의 예가 자청비를 들 수 있는데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부모로부터 분리된 후 남성성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결핍을

8)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p.32.

극복하고 세경신으로 좌정하면서 자청비는 치성이 백근에 모자라 남자가 못되었다는 사회·문화적 장애와 인식을 극복하는 여성이 된다. 자청비라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性壁에 갇혀 있지 않고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 신화를 만들어낸 문화의 여성상이 투사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자청비의 내적인격을 살펴보자.

분석심리학에서 여성이 남장을 하고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것은 단순한 변장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다워지고 남성은 여성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샤마니즘에서 남샤만이 여성인격으로 전환하거나 여무당이 남자 옷을 입는 것 등도 이성으로의 자기실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청비도 여성인 자신의 결핍요소를 남장으로 함으로써 남성다움을 얻고 극복하고자 한다. 남성성을 획득한 후에는 더 이상의 변장이 필요치 않게 되고 자청비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문도령의 목숨을 살리고 변란을 진압하는 등 완전한 인격으로 행동한다.

세경본풀이에서 보이는 문도령과 관계는 자청비 내적인격 중 긍정적인 아니무스의 발현에서 오는 것이다.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글공부를 함께 하는 것과 오줌갈기기 등 지혜를 겨루고 문도령 앞서게 되는 것은 실질적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영역 밖의 한계에 도전한 자청비 자신의 긍정적 아니무스의 작용이다.

반면에 정수남이는 여성을 위협·농간하는 무의식의 파괴적인 힘의 표상이다. 하인 정수남이와 자청비는 부정적 아니무스의 발현으로 상당한 충돌을 빚고 있고 자청비와 정수남이와의 대결양상도 폭력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청비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아니무스로 해서 정당방위라고는 하나 살인과 폭력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즉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겁간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지혜롭다는 그녀가 하인의 피에 넘어간 것을 깨닫게 되고 문도령과 지낸 삼년에서 경험한 남성의 세계와는 다른 야수성을 발견하게 된다. 문도령과 함께 지낸 동안의 발견이 밝고 긍정적인 남성성의 경험이라면 정수남이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정적 아니무스인 것이다.

자청비는 각각 다른 세계를 표상하는 두 남성을 만나면서 자청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니무스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남성성과 어둡고 부정적인 남성성을 두루 경험하게 된다. 여성이기에 결핍되었던 요소들과 정체성을 오히려 여성에게 잠재된 내적 인격 아니무스로 인해 남성성의 긍정·부정적인 면을 깨닫게 완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남성성을 획득한 자청비를 인간계에서 받아주지 않고 거부한다. 자청비의 영웅성은 천상에서 인정되고 문도령과의 혼인에 성공하고 변란을 진압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상계에 내려와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3. 결론

세경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우리 문학상에서 무가가 위치하게 되는 지점을 작업으로 다른 장르의 수수관계나 영향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경본풀이가 보여주고 있는 문화양상에 접근하는 것으로 무가의 내용을 추적하면서 문화현상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내용이 무엇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파·전승된 외래장르의 유입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좀 더 세경본풀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오히려 필자는 원시적인 세계관을 지닌 것이 신화이고 신화의 내용을 상징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의례가 있었다는 가정이 인정되는 바⁹⁾ 제주도 무속신화는 제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상징적인 행위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

9) 제의는 신화와 더불어 행해진다. 신화가 제의의 구술상관물이라고 한 엘리야데의 말은 이미 명제가 되지 않았던가.

아 고대부터 신화로 전승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중국의 강창 문학이 고소설의 모태가 되고 이것이 전파되면서 변방에 남은 장르가 무가라는 주장을 부정한다.

우리가 여성의 원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시각을 고려하게 된다. 여성 스스로가 만들어 내거나 내재한 원형과 여성이라는 테두리 밖, 즉 여성이 아닌 남성의 시각으로 인정한 남성이 만들어낸 여성원형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정통적 여성들은 기득권 체제인 가부장적 세계가 창출해낸 여성원형이다. 남성의 내면 인격인 아니마인 것이다. 이것들은 종종 나약하고 남성들의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와 같은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당당히 자신들을 둘러싼 불합리와 난제들을 극복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제약들에 과감히 도전하고 지혜로 남성들을 물리치고 때론 잠재된 포악성마저 발휘하면서 자신을 지키기도 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란을 진압하는 영웅의 모습이기도 하고 천상으로부터 곡식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신으로 좌정하는 여신의 모습이다.

세경본풀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문화는 성의 억압이나 차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계관을 지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쏘기에 능하며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나 지혜롭고 아테네의 여신이 된 아테나, 원을 상징하는 화로와 신전의 수호신 헤스티아 등 세 처녀가 버티고 있는 회람신화에 버금가는 우리의 여신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정체성 찾기의 기둥이 되어 줄 것이다.

우리 신화가 주는 상상력과 정신의 풍요로움은 물론 제주도 신화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원형에 대한 탐구와 자청비의 내적인격에 대한 연구는 후에 더 언급하기로 하면서 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한다.